

韓 증시, 빛 활용한 매수 급증… 삼성·SK 신용잔고 10조 넘겨

주가 상승분 비해 용자 증가 가팔라
조정 국면 진입시 투자자 부담 가중
HBM 경쟁 등 반도체시장 변화 변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8월 들어 반등했지만, 이를 따라붙은 신용융자 증가 속도는 훨씬 가팔랐다. 두 종목의 주가는 이달 6~8% 올랐지만 신용잔고는 최대 30% 넘게 증가했다. 주가가 아직 52주 최고가를 크게 밀도는 상황에서 빛을 활용한 매수만 빠르게 늘면서 향후 조정 국면의 부담도 함께 커진 모습이다.

◆ 주가 상승 앞지른 빚투… 반도체 쏠림 더 깊어져

31일 금융투자협회와 코스콤 CHECK를 분석한 결과 지난 28일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신용융자 잔고는 총 10조 387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3일 8조 4700억원에서 1조 9178억원(22.6%) 늘어난 규모다.

삼성전자의 신용융자 잔고는 이 기간 4조 2466억원에서 5조 5382억원으로 1조 2916억원(30.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가는 23만 9500원에서 31일 26만원으로 8.6% 올랐다. 주가 상승률의 3배가 넘는 속도로 신용잔고가 불어난 셈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신용융자가 쌓인 가운데, 코스피가 큰 변동성을 보이며 7000선 아래에 머무는 상황. 증권가에서는 양사를 두고 엇갈린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ChatGPT 생성 이미지

SK하이닉스도 주가보다 신용잔고 증가율이 높았다. 신용잔고는 4조 2234억원에서 4조 8496억원으로 6263억원(14.8%) 늘었다. 주가는 156만 7000원에서 167만 4000원으로 6.8% 상승했다.

두 종목은 지난 28일 동반 급락한 뒤 31일 소폭 반등했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2%, SK하이닉스는 1.3%가량 올랐지만 고점과의 격차는 크다. 삼성전자는 52주 최고가인 37만 4500원보다 30.6%, SK하이닉스는 298만 7000원보다 44%가량 낮다.

주가가 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용거래만 빠르게 늘어난 만큼 반도체주가 다시 조정받을 경우 투자자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 담보가치 하락으로 추가 증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의 위험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

시장 전체로 봐도 8월 신용거래 증가세는 가팔랐다. 국내 증시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지난 3일 27조 4438억원에서 28일 33조 3380억원으로 5조 8942억원(21.5%) 증가했다. 유가증권시장 신용잔고는 같은 기간 21조 6141억원에서 26조 3861억원으로 4조 7720억원(22.1%) 늘었다. 전체 신

용융자 증가액 가운데 코스피에서 발생한 금액이 81.0%를 차지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늘어난 1조 9178억원은 코스피 신용잔고 증가액의 40.2%에 해당한다. 지난 28일 기준 두 종목의 합산 신용잔고는 코스피 전체의 39.4%, 국내 증시 전체의 31.2%를 차지한다.

신용잔고 증가 자체보다 특정 대형주에 대한 집중도가 높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코스피 방향을 좌우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다. 두 종목의 주가 변동이 신용투자자의 손실과 지수 하락을 동시에 키우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최근 투자자에게 자금과 코스피 거래대금이 줄어든 점도 부담이다. 현금성 대기자금과 거래 활력은 약해졌지만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신용거래 규모는 확대됐다. 지수를 밀어 올릴 신규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작은 악재에도 주가 등락 폭이 커질 수 있다.

◆ HBM4 경쟁 등 시장 시각 변화

두 종목의 주가를 함께 묶어 평가해 온 시장의 시각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삼성전자가 HBM4 출하와 수율 개선에 속도를 내면서 SK하이닉스가 누려온 시장 지위와 수익성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

됐기 때문이다.

이날 LS증권은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기존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12.5% 올리고, SK하이닉스 목표주가는 33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약 27% 낮췄다. 다만 투자의견은 두 종목 모두 '매수'를 유지했다.

정우성 LS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HBM4 출하 비중이 올해 1분기 5%에서 2분기 35%로 높아지고 수율도 개선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삼성전자의 공급 확대가 SK하이닉스의 공급자 프리미엄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 SK하이닉스의 2027년 HBM 영업이익률 전망을 80%에서 60%로 하향했다.

다음 달 1일 발표되는 8월 수출입 동향에서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확인될지도 양사 주가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오는 4일에는 미국 8월 비농업 고용보고서가 발표된다. 고용 증가세가 둔화하면 잭슨홀 미팅 이후 확산한 금리 인상 우려가 누그러질 수 있다. 반면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을 웃돌 경우 미국 국제금리 상승과 외국인 수급 악화가 겹치면서 신용잔고가 집중된 반도체주의 변동성이 다시 커질 가능성이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증권가, '삼바 유상증자' 시선 엇갈려… 목표주가 '출렁'

인수·투자 활용에도 우려 상존
최대주주 청약참여 여부 변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조원대 현금성자산을 보유한 상황에서 약 3조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시장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조달 자금은 스위스 펩타이드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폴리펩타이드그룹(PPG) 인수와 시설투자에 활용될 예정이지만, 증권가에서는 유상증자에 따른 지분 희석 등을 반영해 목표주가를 잇달아 낮추고 있다.

31일 애프터마켓에 따르면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보고서를 낸 증권사 8곳 중 3곳이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했다. 삼성증권은 지난달 24일 목표주가를 190만원으로 올렸지만 유상증자 결정 이후 180만원으로 다시 낮췄다. 키움증권도 21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DS투자증권도 195만원에서 185만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서근희 삼성증권 연구원은 "이번 유상증자로 신주가 발행됨에 따라 지분 희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전경 /삼성바이오로직스

석 효과를 반영해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했다"며 "차입 대신 대규모 자본 확충을 선택한 것은 재무 구조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되며, 차입 여력을 향후 생산능력(CAPA) 증설 등의 재원으로 남겨두려는 전략으로 판단된다"고 봤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8일 이사회를 열고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신주 227만주를 발행해 약 3조원의 투자 재원

을 마련한다는 계획으로, 기존 발행주식의 4.9% 수준이다. 조달 자금 가운데 2조 7000억원은 PPG 인수에 투입하고, 나머지 3000억원은 시설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증자 비율은 기존 발행주식의 4.9% 수준이지만, 시장에서는 주주까지 희석을 우려한다. 상반기 말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현금성자산은 약 2조 2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정우경 신영증권 연구원은 "사업의 진행 상황과 중장기 성장 로드맵에 완전한 공감을 얻지 못한 상황에서 단순히 회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금조달 방법으로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단독으로 선택했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고 짚었다.

자금조달 전략이 한 달여 만에 바뀐 점도 주주들의 불만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7월 20일 PPG 인수 발표 당시 차입·회사채 발행·유상증자 등을 검토하면서도 유상증자는 가장 후순위 방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영증권은 항체 CDMO 시장의 성숙화와 차세대 모달리티 경쟁력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5공장·미국 공장의 수주 및 가동률, ADC CDMO 수주 상황, 6공장 착공 시기 등 구체적인 투자 성과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발표한 자본지출(CAPEX) 투자계획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시장의 이해도와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최대주주의 청약 참여 여부도 변수다. 유증 물량 가운데 20%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된다.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지분율 43.06%)과 삼성전자(지분율 31.22%)는 기존 지분율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으며, 양사가 배정 물량을 전량 청약할 경우 전체 유증 물량의 60% 이상을 소화하게 된다.

나이스신용평가는 "그룹의 지원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회사의 신용도를 지지하는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신한투자증권 '신한 SOL 로보 연금' 출시

AI 기반 퇴직연금 자동투자 서비스

신한투자증권은 개인형퇴직연금(IRP) 고객을 대상으로 AI 기반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자동투자 서비스인 '신한 SOL 로보 연금'을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신한 SOL 로보 연금'은 고객이 투자성향을 선택하면 AI가 ETF 자산배분, 종목 선정, 리밸런싱 등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퇴직연금 자산관리 서비스다. 고객은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가운데 투자성향을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고객 자산운용을 위해 자체 개발한 AI 퀀트 모델을 적용했다. 해당 모델은 시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식, 채권, 대체자산 간 자산배분 비중과 편입 ETF를 결정하며, 주기적인 학습을 통해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도록 설계됐다.

운용 대상은 국내 상장 ETF 중 IRP 계좌 편입이 가능한 상품이다. 서비스는 매월 정기 리밸런싱을 실시하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추가 리밸런싱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조정한다.

연금 개시 전 IRP 고객은 최소 100만원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동투자 한도는 최초 신청일 기준 계약연차에 따라 연 900만원씩 확대되며, 사용하지 않은 한도는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신한투자증권이 고객을 대상으로 선보이는 첫 로보어드바이저 기반 연금 투자 서비스다. 신한투자증권은 서비스 출시에 앞서 2023년 12월부터 코스콤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서 동일 전략을 기반으로 모델을 중단 없이 운용하며 성과를 검증해 왔다. 코스콤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공시 기준 누적 수익률은 적극투자형 66.85%, 위험중립형 45.57%, 안정추구형 24.63%를 기록했다.

/신하은 기자

증권업계, 1조 규모 벤처 세컨더리 투자 추진

금투협 모험자본 선순환 구조 구축 계획

증권업계가 벤처투자자의 자금 회수를 돕기 위해 향후 3년간 약 1조원을 세컨더리 시장에 투입한다. 기업공개(IPO)에 편종된 회수 경로를 넓혀 회수 자금이 다시 벤처·혁신기업으로 유입되는 모험자본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들과 함께 약 1조원 규모의 벤처 세컨더리 투자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세컨더리 투자는 기



금투협 회장

존 투자자가 보유한 비상장기업 주식이나 벤처펀드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이다.

투자는 증권사별 개별투자와 업계 공동펀드를 병행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진행한다. 개별투자는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을 영위하는 초대형 투자은행(IB) 7곳을 중심으로 6185억원 규모로 추

진한다. 참여사는 미래에셋증권과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이다.

향후 발행어음 사업자가 추가로 인가받아 투자에 참여하면 개별투자 규모는 약 7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공동펀드는 지난해 영업이익 상위 15개 증권사와 금투협을 중심으로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교보증권과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토스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이 참여한다.

금투협은 공동펀드 운용기관 선정 공고를 거쳐 최종 운용기관을 정하고 출자약정 체결을 마친 뒤 투자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투자는 벤처기업 투자자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하고 IPO 중심의 회수구조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회수된 자금의 재투자율을 촉진해 벤처시장에 안정적인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황성업금투협 회장(사진)은 "증권업계가 벤처·혁신기업의 성장 생태계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벤처 회수시장 활성화와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